

커지는 빅텐트…민주당, 중도·보수 ‘외연 확장’ 가속화

개혁신당출신 등 잇단 입당
‘내란 극우’ 국힘 고립 전략
깜짝 영입 추진…통합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위해 친 외연 확장을 빅텐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중도·보수 진영 인사들이 속속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내란 극우’ 프레임에 고립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0일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행보로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들며 민주당의 빅텐트는 그랜드 텐트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와 문병호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인사의 합류는 민주당이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라는 가치를 앞세워 보수 인사까지 접촉면을 넓힌 결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석된다.

민주당은 헌정 수호 연대 세력을 최대한 넓게 구축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선거 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 지도자로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진영 인사들의 합류에 ‘진짜 빅텐트’를 자처하며 국민의 힘과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대선 초반부터 추진한 빅텐트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빅텐트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는 자신감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깜짝’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인사 영입에 과도하게 치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인사·상황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영입하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실점을 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선대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작용한다”며 “결이 다른 인사가 오면 차츰 또 다른 분과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이상기후 대응 ‘마을 안전지킴이’ 첫 운영

집중호우·산사태 선제 대처
예찰·긴급조치·대피 등 지원

전남도는 20일 “최근 급증하는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재해 위험지역·시설을 직접 예찰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되기 전 즉시 보호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한다.

도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재해위험 마을을 선정해 마을안전지킴이를 편성하고 공무원과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 안전지킴이는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의 사전 예찰과 긴급 조치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 지원 △마을대피소 운영과 1대1 매칭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읍·면·동장은 유선 또는 누리소통망(SNS)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내리고 기상과 현장 상황을 즉시 공유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9억여원을 투입해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장비와 운영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청년 자율방재단과 드론순찰대를 시범운영하는 등 방재활동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규모와 속도가 커지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중심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당 “거짓말 지귀연에 윤 재판 맡겨도 되나”

“사법부 스스로 권위 세워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똥싸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계산법)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마음대로 빼먹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

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했다.

전날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항응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짓해명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의혹 대상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성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반지하·노후주택 현장점검

광주시는 20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검한다.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주택 20곳에 대한 현

장방문을 통해 집중호우 대처 요령과 침수방지시설 관리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주택 10곳이 대상이다.

노후주택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 민

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전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안전점검, 화재안전,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은 즉시 보완조치를 유도하고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병상관리 공공·효율성 높인다

제3기 수급·관리계획 시행
한방병원 등 신·증설 제한

광주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병상관리계획을 구축,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정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수·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

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김용현 기자

농심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